

별자리 해설

별자리란 동물, 물건, 신화 속의 인물들로 자주 표현되는 이름을 붙여 놓은 것으로서 주목적은 하늘의 별들을 찾기 쉽게 이어놓은 것이다.

흔히들 성좌라고도 불리는 이것의 기원은 약 5,000년 전 바빌로니아 지역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강 지역의 양치기들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이들은 하늘의 별의 형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B·C 3,0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의 표석에는 양, 황소, 쌍둥이, 게, 사자, 처녀, 천칭, 전갈, 궁수, 염소, 물병, 물고기 등의 황도 12궁을 포함한 20여 개의 별자리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도 43개의 별자리를 B·C 3,000년경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이들의 천문학은 그리스에 전해져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 또는, 영웅 등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카시오페이아, 페르세우스, 안드로메다, 세페우스, 큰 공, 작은 공 별자리가 그 대표적 예이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 등의 동양의 고대 사람들도 별자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해지는데 이들은 서양의 것과는 계통을 달리하며 중국의 경우 B·C 5세기경 적도를 12등분 하여 12차(次)라 지었고, 적도 부근에 28수를 만들어 별자리를 지었다. A·D 3세기경 283궁의 1,464개의 별을 실은 성도는 진탁이 완성을 하였으며 한국의 옛 별자리는 그 기원이 중국에 있다.

1) 뽕

(1) 큰곰자리

특징 및 찾는 방법

북극을 기준으로 북두칠성이 등과 꼬리를 형성하고 있는 큰곰자리는 가을을 제외하고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로 유명하다. 이는 북극성 위로 가장 높이 자리 잡는 5월 초가 가장 장관을 이루며 또한 북두칠성도 가장 또렷이 보인다. 흔히들 영어권 사람들은 큰 물 주걱이란 뜻으로 'big dipper'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북두칠성이란 명칭은 그 기원이 중국이다. 이 별자리를 찾으려면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북극성을 우선 찾고 그 주위에서도 가장 밝은 별자리가 바로 큰곰자리이다. 이 때문에 큰곰자리는 가장 찾기 쉽다고들 한다. 이 별자리는 1년 내내 볼 수 있어 주로 어민들이 뱃길 잡이로 사용하기도 하며 그 움직임이 일정하여 시계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생김새가 앞에서 설명한 듯이 큰 물 주걱의 아래쪽으로 뒷다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따라 올라오면 머리, 그 밑엔 앞다리가 위치하고 있다.

별자리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는 칼리스토라는 원기 왕성한 처녀가 있다. 그녀는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의 시종을 들고 있었으며 주로 들과 산을 뛰어다니며 사냥을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이를 우연히 지켜보던 제우스신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 버렸고 곧 내려가 아르테미스로 변신하여 접근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칼리스토는 속아버렸고 곧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게 되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알카스'였으며 이를 알게 된 헤라 여신은 무척 분노를 하게 되었다. 곧 칼리스토는 보복을 당하여 곰으로 변하게 되는 마법에 빠졌고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비관하여 숲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진짜 곰들과 마주하자 너무 무서워 계속 달리며 숨어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일은 계속 되었고 정처없이 계속 뛰기만 하게 되었다.

(2) 작은곰자리

특징 및 찾는 방법

작은곰자리는 비록 북두칠성과 비교는 되지 않지만 많이 닮아 작은 물 주걱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하여 북두칠성을 큰 물 주걱이라 부르며 이것을 작은 물 주걱이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이 별자리를 보며 어선들이나 비행기들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항로를 조정하였으며 육지에서 길을 떠나던 사람들도 많이 참고를 하였다. 이는 이 별자리가 하늘의 북극으로부터 1°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진북하늘에 보여서이다. 이 별자리는 북극성만 찾으면 쉽게 찾는다. 북극성이 이 작은 물 주걱의 손잡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북두칠성이 지평선에 걸쳐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W 형상을 하고 있는 카시오페이아 별자리를 확인하면 된다. W의 중심에 위치한 별로부터 정점까지의 거리를 다섯 배 정도를 연장하면 가장 밝은 북극성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별자리 이야기

이 작은 곰 자리 또한 큰곰자리와 이야기를 같이한다. 헤라의 저주로 곰이 되어버린 칼리스토는 몇 년이 지나 우연히 아들인 알카스를 만나게 되었다. 알카스는 어머니의 기상을 이어받아 사냥을 아주 좋아하였는데 칼리스토가 다가오자 곰이 덩벼드는 줄로만 알고 죽이려 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제우스가 두 모자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꽤 씁쓸히 여긴 헤라는 북쪽 하늘에 처넣고 1년 내내 쉬지 못하고 계속 돌게 만들어 버렸다.

3. 목자자리

특징 및 찾는 방법

보통 1년 중 밤 길이가 가장 짧은 하지에 구름 사이로 엄청나게 밝게 반짝이는 별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장마철이기 때문에 잘 볼 수는 없지만 보게 되더라도 오염된 공기가 비로 말끔히 씻어진 이후에 보기 때문에 더욱 밝고 아름답게 빛난다. 이 별자리는 가장 밝은 아크타우루스를 포함한 6개의 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서양의 연이라는 추측도 있고 배의 돛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옛 성도에는 두 마리의 개를 끄는 목동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 목자자리라고 불린다. 목자자리는 초여름 하늘 머리 위에 가장 밝게 빛나는 아크타우루스를 주위로 빛나는 오각형 모습을 띠며 남쪽의 처녀자리와 사자별자리의 중심에 큰 삼각형을 띠고 있어 봄의 대 삼각형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큰물 주걱인 북두칠성의 손잡이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가면 아크타우루스를 발견할 수 있다.

별자리 이야기

이 별자리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것은 큰곰자리에 속한다는 설과 그렇지 않은 설이 있다. 큰곰자리에 속한다는 설에 따르면 큰 곰을 쫓는 알카스의 모습을 형상으로 한다고 하여 알카스라는 이름의 사냥꾼 자리라는 설이 있고, 속하지 않는다는 설을 택한다면 북두칠성까지 포함한 별자리로 표현하는데 이 북두칠성을 소가 끄는 차로 보고 이 소를 끄는 차를 다루는 사람이 목동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설이 공존하여 확실하지도 않고 막연할 따름이지만 이 별자리의 아름다움은 그 막연함을 잊게 해준다.

4. 왕관자리

특징 및 찾는 방법

장마철이 지난 7월 중순경 H모양을 한 허큘리스 자리 사이에 약간 어둡지만 7개의 별이 반월 모양으로 빛나고 있는데 이를 왕관자리라 부른다. 중국에서는 이가 약간 어둡기 때문에 감옥으로 보고 관색이라 부르지만 그 외에도 차성, 도깨비의 머리 등으로도 부른다. 남쪽에도 이와 비슷한 별자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남쪽의 왕관'이라 부르고 이 별자리를 '북쪽의 왕관'이라고 구분을 한다. 이 자리는 허큘리스 자리와 목자자리의 사이에 끼여 있어 아크타우루스의 북동쪽이나 허큘리스의 북동쪽을 찾으면 반월 모양의 별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두운 별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도 별로 크진 않지만 반월 모양이라는 그 특이한 모양 때문에 쉽게 찾곤 한다. 왕관자리는 구성하고 있는 별들이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에 길잡이별인 목동자리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목동자리의 감마별과 북두칠성의 손잡이 마지막별을 연결하고 연장하면 왕관자리의 알파별을 찾을 수 있다.

별자리 이야기

아테네에는 소의 얼굴을 한 미노타우로스에게 9년마다 한번에 7쌍의 소년 소녀를 재물로 바쳐야 했다. 그래서 왕인 아이게우스는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16년 만에 아테네에 돌아온 왕자 테세우스가 스스로 자원하고 나섰다. 그가 미노타우로스가 사는 크레타 섬에 가보니 지하도시 깊숙이 살고 있어 나오는 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 섬의 왕녀인 아리아도네가 털실로 그 길을 표시하게 하여 미노타우루스를 퇴치하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테세우스가 아내로 맞이하려 한 아리아도네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다. 약혼자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였으니 테세우스는 그녀에게 7개의 보석이 달린 왕관을 씌워주고 떠났다. 후에 디오니소스는 이 왕관을 보고 화가 나서 하늘로 집어던져서 이 왕관이 별자리가 되어 왕관자리가 되었다.

5. 까마귀자리

특징 및 찾는 방법

일그러진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4개의 3등급 별로 이루어진 까마귀자리는 컵자리와 함께 바다뱀자리의 등 부분에 있으며 동양권에서는 돛을 단 별로 불리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도 이 4개의 별을 범선의 돛이라고 보았다. 이를 Spica's Spanker라고 불렀는데 이 Spica라는 단어는 처녀자리의 Spica를 뜻한다. 가만히 보면 까마귀하고 거리는 멀게 느껴지지만 α 성을 까마귀의 주둥이라고 칭한다. 까마귀자리는 봄의 대 삼각형 중의 한 별로 스피카 성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8개로 이루어진 물 컵 모양의 컵자리로부터 좌측에 위치한다. 그리고 바다뱀자리의 가운데로 길게 물리는 쪽의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까마귀자리는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의 곡선부터 목동자리를 지나 처녀자리까지 내려오는 큰 곡선을 이용한다. 이 곡선을 15도 정도 연장하면 사다리꼴 모양의 까마귀자리를 찾을 수 있다.

별자리 이야기

옛날 까마귀는 아폴론의 시중을 들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신기하게도 사람의 말을 하고 날개는 원래 황금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아폴론은 텃사리아의 왕녀 콜로니스를 아내로 삼았으나 너무도 바빠서 까마귀가 그날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콜로니스가 오빠와 이야기하는걸 오해한 까마귀는 아폴론에게 어떤 남자와 같이 있었다고 일러바쳤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아폴론은 당장 집으로 가서 콜로니스를 화살로 쏘았다. 콜로니스는 이때 임신 중이었는데 이 아이가 훗날의 의술의 신 아스크레피오스였다. 거짓을 알린 까마귀는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고 “까아, 까아”라는 울음소리만을 내게 되었고 날개도 검은색으로 변하였다.

6. 사자자리

특징 및 찾는 방법

4월 하순이 되면 사자자리는 주위의 별이나 다른 별자리를 기준 삼을 것도 없이 남쪽 하늘 높이 사자를 그대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자자리는 옛날부터 태양의 겉보기 궤도인 황도의 5번째 별자리로서 유명했다. 사자의 머리와 앞다리를 잇는 큰 낫 모양의 자리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풀베기 낫과도 생김새가 비슷하여 Lion's sickle이라고도 불렀다. 사자자리는 1등성 한 개와 2등성 두 개를 포함한 밝은 별자리이며 매년 11월 18일 전후 새벽에 γ 성 부근을 기준으로 하여 유성이 많이 난다고 하여 유성군이라고도 한다. 사자자리는 북두칠성의 물 주걱 밑과 곰 자리의 아랫부분인 남쪽을 살펴보면 그곳에 있다. 또한, 그 밑으로 육분의자리와 바다뱀자리가 자리 잡고 있다. 북두칠성의 국자가 시작되는 부분의 두 별을 연결하여 계속 나아가면 사자자리의 첫 별을 찾을 수 있다. 머릿부분의 첫 별과 두 번째 별이 등과 꼬리부분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된다.

별자리 이야기

용맹한 전사 헤라클레스에겐 12가지 힘든 과업이 있었다. 그 첫 번째인 제우스신의 궁전 근처에 있는 네메아 계곡의 괴물 사자를 퇴치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자는 히드라와 마찬가지로 괴물 에키도나의 새끼였기 때문에 불사신이였다. 헤라클레스는 화살을 쏘아 보았으나 헛수고만 하고 곤봉으로 때려잡을 생각으로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사자는 곤봉으로 맞고 목이 졸려 숨졌다. 이에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머리를 감모로 사용하고 가죽을 몸에 감고 그 다음 과업을 수행하였다. 사자자리는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태어난 사람들의 별자리로서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정열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사회지도자로서 적합하다고 전해진다.

7. 처녀자리

특징 및 찾는 방법

처녀자리는 태양의 겉보기 궤도인 황도의 6번째에 해당하는 자리로서 옛날 프톨레마이오스가 정한 별자리에 수록된 것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1.0등급의 가장 밝은 별 스피카는 청백색의 빛을 발하며 오렌지색의 별인 아크타우루스와 대조를 이룬다. 옛날에는 이 두 별을 봄의 부부성이라고 보았다. 이 자리를 찾으려면 우선 봄의 삼각형을 찾고 이 세별 중에 가장 남쪽의 청백색을 띤 별인 α 성을 기준으로 하여 육안으로 뚜렷이 볼 수 있는 여섯 개의 별들이 곧 처녀자리이다. 처녀자리는 봄의 별자리 중 시기적으로 가장 늦지만 다른 별자리들을 찾을 때 쓰이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의 곡선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 욱동자리를 지나 처녀자리에 이르게 된다.

별자리 이야기

이 별자리는 제우스신과 타이탄 족의 여신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정의의 신 아스토레아의 이야기이다. 젓과 술이 흐르고 싸움이 없던 금의 시대에는 신들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았다. 하지만, 은의 시대가 오고 4계절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일도 하고 싸움도 하게 되었다. 이에 신들은 하늘나라로 돌아갔고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싸움을 하게 된 동의 시대까지도 아스토레아는 사람들의 곁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철의 시대가 와서 부모 형제까지도 죽이며 전쟁을 하게 되자 너무 실망한 아스토레아는 하늘로 돌아가 별자리가 되었다.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처녀자리에 속하며 이들은 선악에 대한 비판력이 강하다고 전해진다.

8. 계자리

특징 및 찾는 방법

오랜 별자리인 계자리는 그 시초가 5,000년 전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등장한다. 또한, 태양의 겉보기 궤도인 황도의 4번째 별자리에 속한다. 볼 만한 별도 없고 가장 밝은 별이 3.5등급을 가지기 때문에 찾기도 쉽지 않지만 망원경으로 확인한다면 100개 이상의 작은 별들이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플리세페 산개성단을 이룬다. 이 별자리를 찾으려면 쌍둥이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형성하고 있는 캐스터와 폴락스 성을 직선으로 이어 남동쪽으로 눈을 돌리면 늦봄의 별자리 사자자리가 나타난다. 이 사자의 발목 부분의 가장 밝은 별 레굴루스로부터 북서쪽으로부터 캐스터와 폴락스의 연장선과 함께 연하게 보이는 자리가 바로 계자리이다. 계자리는 황도 12궁 중 가장 희미하고 눈에 덜 띄는 자리이다. 길잡이별은 쌍둥이자리의 첫째, 둘째별이다. 두 별을 이어 다섯 배정도 연장하면 계자리를 구성하는 첫째 별을 찾을 수 있다.

별자리 이야기

제우스와 알크메스 사이에서 낳은 헤라클레스는 여신 헤라의 질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라클레스의 행복을 못마땅하게 여긴 헤라는 광기의 여신을 보내었고 그는 처와 자식을 죽이고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자책감에 시달린다. 정처없이 여행을 하다가 신탁으로부터 유게나이의 왕 에우류스테우스의 시중을 들며 제우스의 12가지 과업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중 두 번째인 100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를 죽이는 일을 할 때 여신 헤라는 히드라에게 괴물 계를 지원군으로 보내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발로 문질러 죽여 버렸다. 6월 22일부터 7월 22일 태어난 계자리의 사람들은 창조력이 강하고 모성애가 풍부하다고 전해진다.